



KSC News **성령 은사적 쇄신 소식**

Catholic Charismatic Renewal

가톨릭 성령쇄신 미주 한인 봉사 협의회 Korean Service Committee of the CCR in the U.S.A.

새해를 맞는 미주 한인 은사적 쇄신 운동의 3대 과업

지난 해 KSC는 자원 봉사자들의 헌신적 봉사 로 과중한 재정적 부담 없이 각종 사업을 추진했다. NSC와 함께 San Antonio, TX 한인 성령 대회를 통해 소개한 2000년판 New LSS 가톨릭 지침서는 이미 출간 단계에 들어 갔으며, 이를 새해에 한인 공동체에서 쓸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처음으로 한미 가정 LSS 세미나를 시행하여 좋은 성과를 얻었다. 2004년 신규 사업으로는 오랫동안 미주 한인 공동체의 숙원이던 대학 선교(Campus Ministry) 사업을 시작한다.

KSC는 이들을 새해의 3대 과제로 삼고 이를 위하여 각 지역 봉사회와 더불어 본당 기도와 일선 봉사자들을 지원한다.

첫째로 KSC는 성령 안의 삶 세미나 2000년 가톨릭 지침서 신판의 출간과 함께 이를 기초로한

기초 세미나를 확산시킬 예정이다. 일선 기도와 봉사자들이 독자적으로 기초 세미나를 주관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기초 세미나 봉사자의 교육 훈련 세미나를 병행한다.

둘째로 KSC는 미주 한인 청년 학생의 신앙 활성화를 위하여 봉사할 대학 선교 봉사자를 발굴, 지원하는 Campus Minister Network 형성에 착수 한다. 우선 6월 25일에 보스톤에서 NSC 주최로 개최되는 미 전국 성령 대회와 병행하여 제1차 미주 한인 청년 학생 신앙대회를 개최한다.

셋째로 KSC는 2003년에 착수한 한미 성가정 세미나를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하여 우선 한미 가정이 많이 있는 지역의 기도와 봉사자들이 상호 협력할 수 있는 Network 형성에 주력한다.

2004 쇄신 세미나 일정

1/25-28	동남부 봉사회: 성령 안의 삶 세미나. 안 엘리사벳 (704-839-6445)
2/6-7	서북부 봉사회: 성령 안의 삶 세미나. 이 줄리아 (253-223-7885)
2/19-23	KSC: 2004 과달루페 성모성지 순례. 신 요안나 (440-835-3219)
3/25-28	Calgary 공동체: 성령 안의 삶 세미나. 김 마리아 (403-988-4928)
4/30-5/2	KSC: (동부 3차) 은사적 성모신심 세미나. 이 줄리아 (253-223-7885)
5/24-27	Denver 공동체: 성령 안의 삶 세미나. 박 리사 (303-403-4902)
6/25-27	NSC: 미전국성령대회 (보스톤), KSC: 미주 한인 청년학생 신앙대회, Austin Song (206-963-7845), James Hwang (617-388-1945)
7/9-11	동북부 봉사회: 동부 성령대회. 봉사회 사무실 (201-398-1170)
7/29-31	Dallas 공동체: 성령 안의 삶 세미나. 민 라파엘(214-437-8784)
9/14-22	KSC: 2004 한국 순교성지 순례. 신 요안나 (440-835-3219)

미주 한인 천주교 성령가족을 위한 격 월간지
130 67th Ave Ct E, Fife, WA 98424
Tel.Fax. (253)663-4407
 news@kscusa.org http://kscusa.org



전국 각지에서 복음화를 위해 수고하시는 췌신 가족 여러분에게 주님의 성탄 축하와 함께 새해 인사 드립니다.

회장 Corner 이 창재 부제

희망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복음화를 위해 수고하시는 췌신 가족 여러분에게 주님의 성탄 축하와 함께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KSC는 올해에 3대 과업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보스톤에서 6월 25일에 개최되는 NSC 주최 미 전국 성령 대회와 병행하여 역사적인 미주 청년 학생 신앙 대회를 열고, 미주 한인공동체의 숙원인 대학선교 (Campus Ministry)의 사역에 착수합니다. 장차 대학 선교를 위하여 전국적으로 대학 교정을 연결하는 Campus Minister Network을 형성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2003년에 시작한 한미 성가정 LSS 세미나를 금년에도 계속해서 확산시킬 것입니다.

이 막중한 사역을 위하여 많은 전문가와 재원이 필요합니다. 이에 KSC 와 동행할 자원 봉사자와 후원자들의 적극적인 호응을 기다립니다.

부디 복되신 어머니의 품 안에서 주님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안 마리아 (CO)	\$100.00
신 캐롤라인 (MN)	\$100.00
김 모니카 (MI)	\$100.00

작은 나눔 큰 기쁨 후원회에 초대합니다.

KSC와 더불어 미주 한인 사회의 복음화를 위한 은사적 췌신 운동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KSC 후원회원이 되면:

1. KSC Newsletter를 직접 받습니다.
2. KSC 출판도서를 우선적으로 받습니다.
3. KSC 행사에 우선적으로 초대 됩니다.
4. 매년 11월 1일 회원들을 위한 특별 미사가 봉헌됩니다.

정 회원의 회비는 월 \$10 또는 연 \$100 입니다.

회원 주소와 check 보내실 곳:

KSC HQ Office
7031 Kenmare Dr., Bloomington,
MN 55438

감사합니다.

1월중에 세금보고를 위한 2003년도 후원금 (Donation) 영수증을 보내드립니다

김 영숙 (SC)	\$50.00
주 세시리아 (MD)	\$100.00
이 아네스 (AL)	\$100.00
현 정인 (WI)	\$1,000.00
이 리디아 (CA)	\$1,000.00
과달루페 순례 수입	\$1,412.00
김 마르타 (NJ)	\$100.00

KSC 2004년 과달루페 순례와 선교 세미나

KSC는 2004년에 다시 과달루페 성모성지 순례(제2차) 를 아래와 같이 준비하고 췌신 가족을 초대합니다.

일시: 2004년 2월 19일(목) - 2월 23일(월)

집합 장소: Mexico City International Airport

집합 시간: 2004년 2월 19일 오후 3시

항공 문의: 세계 여행사 (800-555-9352, Lydia Lee)

일정 문의: 신요안나: 440-835-3219, E-mail: cjshinmd@adelphia.net

회비: US \$400 (숙식 교통), 항공료는 별도

보낼 곳: Check payable to Dr. Janet Shin (주소/ 2404 Georgia Dr., Westlake, OH 44145)



나의 체험기

과달루페 성지 순례 여정

박 리사, 덴버 기교회장

교회 축일의 민속화....인디오들의 생활 속에 살아 숨쉬는 성모 마리아

지난 11월에 KSC에서 주최한 과달루페 성모님 발현 성지순례를 다녀왔다. 미리 계획했던 방문 순례도 아니었고 다만 성모님께서 부르시는 마음속 울림의 응답이었다.

비행기로 Mexico City에 도착했을 때 그 전에 성지 순례에서 만났던 분이 눈에 띄어서인지 비행장 분위기도 타국 같지 않게 느껴졌다. Hotel로 가면서 버스에서 내다 보는 시내의 모습이 내가 한국에서 자라온 거리 모습들을 연상케 했다.

첫날은 만남의 기쁨을 나누는 좋은 시간이었다. 캐나다에서 오신 수산나 언니 부부를 만났고, 보고 싶던 언니하고 같은 그룹에 짝이 되어 전용 버스를 함께 탈 수 있게 되어 좋았다. 미안하게도 바오로 오빠는 외톨이가 되었지만.....

둘째 날 아침 식사 후 과달루페 대성당으로 출발했다. 수많은 주민들이 시가를 메우고 있었고, 보이는 상점마다 제사상이 차려져 있었다. 그날이 모든 성인의 축일이었고, 위령 성월이 시작되는 위령의 날은 그들에게 중요한 날로 3일에서 8일 사이에 연령들을 위한 제사를 지낸다 했다. 470년 전에 발현하여 아메리카 대륙의 어머니가 되신 성모님은 그들의 수호자로 되었고 교회의 축일들은 그들 생활 안에 스며들어 민속화 되어 있었다.

과달루페 대성당 광장에 도착하자 기다리던 마음이 감격으로 가볍게 움직였다. 지진으로 인해 기울어진 오래된 구 성당 앞을 지나서 새로 세운 대성당은 구약성서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를 연상케 하는 배와 같은 모습이고, 육중한 문을 들어서자 펼쳐진 성당은 원형으로 웅장했다. 제대 벽에 모셔진 성모님 영정을 가까이 참배하는 순간에 어머니

의 품 안에 안기는 듯한 아늑함이 가슴에 와 닿았다.

1531년 12월 9일부터 12일 사이에 4번 소박한 원주민 처녀의 모습으로 나이트 후안 디에고(Juan Diego)와 그의 숙부에게 발현하시어 원주민 말로 '과달루페의 평생 동정녀 성 마리아'라 하시고 그곳에 성전을 세우게 하시어, 날개 돋친 돌뱀을 신으로 섬기며 매년 수많은 어린이들을 제물로 바쳐오던 멕시코들을 사탄의 지배에서 해방시켜, 7년 동안에 약 800만의 원주민을 개종시키신 성모 어머니!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사랑으로 지켜보시며 두 손을 합장하시고 묵묵히 기도하시며 내려다보시는 어머니 모습은 거의 500년이 지난 지금도 변함이 없으시다.

곧 이어질 미사시간으로 그곳에 오래 머무를 수 없어서 아쉬웠지만 성모님 영정을 멀리 바라보면서 미사 중에 성체로 오신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한마음이 되어 성모님께서 장미꽃이 피지 않는 겨울 12월 12일에 후안 디에고에게 장미꽃송이를 주신 언덕길을 올라갔다. 지금은 계단으로 바뀌었지만 500년 전에는 험한 돌산이었음을 상기하면서..... 선인장 줄기로 짜서 만든 떨마에 장미를 가득히 안고 주교님께 드렸을 때 떨마에 새겨진 성모님을 뵈고 무릎을 꿇고 엎드린 주교님의 심경을 헤아리면서..... 옛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지만 목주 기도 드리는 순례객들이 증언하고 있었다.

과달루페 발현 축일 12월 12일에는 신심 깊은 주민들이 무릎으로 기어서 이 계단을 오르며 목주 기도 드린다고 한다.

셋째 날에 멕시코시 한인 성당에서 주일 미사를 드렸다. 영성체 후에 최 종수 지도신부님 특송으로 미사가 절정에 닿았다. 이곳에서도 교포들이

우리말로 미사를 봉헌할 수 있어 감사했다.

미사후 찰코(Chalco)에 있는 빌라 드로스 니로스(Villa De Los Ninos)여학교를 향해 버스는 시골길을 달렸다. 소가 끌고 가는 달구지, 옥수수대 세운 모습이 눈에 띄었다. 담 울타리 쳐진 교정 안에 버스가 들어서자 일하던 여학생들이 우리를 향해서 손을 흔들었다. 4000명을 수용하는 캠퍼스에 농장처럼 식물을 재배하고 정원목도 잘 가꾸어져 있었다. 넓은 운동장에서 축구 연습을 하는 여학생들도 있었다.

한국 수녀님들의 안내로 식당에서 맛있게 먹은 그날의 점심은 수녀님들께서 직접 마련하신 돼지고기 상추쌈, 김치, 두부 국이었다. 마닐라에 본원을 둔 마리아 수녀회에서 파견되신 교장 수녀님과 두분의 교사수녀님들이 현지의 교사수녀님들과 이 많은 여학생들을 지도하시고 계셨다. 가난으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아이들을 모아서 중 고등부와 기술분야를 교육시켜 사회에 나가 여러 분야에 종사할 수 있게 키우고 있었다.

우리를 환영하기 위해 4000명의 여학생들이 기다리는 강당 입구에 들어서자 마음이 뿌듯하고, 미안하고, 쑥스러웠다. 지금까지 이처럼 대단한 환영을 받아 본 적이 없어서였다. 우리는 의자에 앉고 학생들은 바닥에 앉아 순박한 눈빛으로 우리를 지켜보았다. 멕시코 댄스 와 한국 고전무용으로 우리를 위해서 공연하였다. 보답하는 마음으로 우리도 무대에 올라가 노래할 때, 만남과 사랑의 한국 노래를 학생들이 더 잘했다. 노래는 언어 장애도 없이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어 학생들과 이별의 나뭇잎이 마음을 저리게 했다,

넷째 날에 스페인 통치의 역사가 담긴 필라민 위에 세워진 성당을 방문한 다음 가난한 인디오 원주민 성당에서 드린 미사는 감동적이었다. 우리 모두는 천장을 수리중인 성당을 위하여 정성어린 선물을 봉헌하였다.

떠나는 날에 과달루페 대성당에서 다시 한번

미사를 봉헌할 수 있게 되어 기뻐하며 자애 깊은 성모님께서 우리가 아쉬워함을 아시고 당신 품에 한번 더 안아주시는 포근함을 느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께서 5번이나 이곳을 방문한 뜻을 되새기며, 언제까지나 어디서나 우리의 어머니이신 성모님께 우리의 삶을 봉헌하기로 다짐하면서 과달루페를 하직하였다.

성령 안의 삶 세미나 새 지침서의 특징

- 새 지침서는 성령 안의 삶 지침서가 가톨릭 본당 공동체의 쇄신에 보다 효율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가톨릭 교의 신학에 맞게 그리고 가톨릭적 용어 표현으로 개정되었다. 따라서 새 지침서는 관련 참고 자료로 대폭 보강하였다.
- 새 지침서는 세미나의 목적을 가톨릭 교의 신학과 교회의 가르침으로 선명하게 정리하여 제시하였고, 세미나가 신앙 쇄신의 열쇠가 되는 회두/ 회심의 가장 탁월한 도구임을 제시하고 있다.
- 새 지침서는 성사적 관점에서 세례성사 서약 갱신 (Renewal of Baptism Vows)과 그리스도 교인 입문성사(세례, 견진, 성체성사)를 통해 성령께서 주신 것을 새롭게 표출 (a new release of the Holy Spirit)토록 하고자 하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 새 지침서는 세미나의 핵심이 되는 회두/ 회심 (conversion)이 몇번의 절정의 순간을 수반할 수는 있지만 평생 계속되어야 하는 과정임을 강조하고 있다.
- 새 지침서는 처음 세미나에 참가하는 이들을 도와 주기 위한 사역으로, 그리스도교 성인 입교예식 (RCIA)에서와 같이 후견인 (Sponsors) 제도를 새로 도입하였다.
- 새 지침서는 성령의 선물과 은사는 신자와 공동체가 일상 생활에서 봉사하는 데 필요한 도구, 즉 하늘 나라를 건설하는 데 필요한 도구라는 관점을 강조하고 있다.
- 새 지침서는 7주 세미나의 주제와 순서는 그 전과 동일하나 2주, 4주, 7주에서 가르침의 핵심을 적절하게 보강 개정하였고 그에 맞게 주제 성서를 새로 뽑았다.
- 새 지침서에서도 역시 4주 가르침과 5주 가르침 사이에서 필요한 사람에게 고해성사, 또는 봉사자와의 면담을 권유하고 있으나 이를 세미나의 필수적인 요건으로 제시하지 않고 있다.